

4-7-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에베소서 1:1-23

말씀제목: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양자로 입양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부터 이미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야말로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가동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하늘에서 처음으로 범죄한 루시퍼가 자신이 기초를 놓으시게 될 지구에 내려와서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을 미리 아셨을 것이라는 상상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에 범죄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히 2:14-15, 요일 3:8)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복을 자신의 자녀들이 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되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요 17:24)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택하시는 것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부터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엡 1:4-6)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째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29-30)

그는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롬 6:3-5)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함께 화해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고후 5:17-19)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증거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을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에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엡 1:8-10)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바 이스라엘을 위한 칠십 이레 중 마지막 한 이레인 7년 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살전 4:16-18, 고전 15:51-53).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주신 유업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 1:29-23)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 환란 끝에 지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밖에서 하늘과 땅을 파괴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져 죽이시고 마귀를 끝없이 깊은 구렁 속으로 던져 봉인하시고 그의 왕국을 세우실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같이 마침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륜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위한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새 땅의 제사장 민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하나님의 교회는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계 5:9-10).

그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보증으로 주셨던 유업을 영원무궁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니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돕는 배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소망과 유업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 1 1:23)

아멘! 할렐루야!